

모둠별 활동 결과 보고서

모둠 이름	5 모둠
활동 제목	
역할 분담 결과	<p>권현수: 5 김수빈: 5 김병국: 5 김동환: 5 권구민: 5</p>
모둠별 활동 결과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잘된 점:</p> <p>권현수: 한글날을 맞아 생소하고 헛갈린 우리말에 대해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. 김수빈: 헛갈리는 우리말에 대해 과제도 할 겸 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. 김병국: 우리말이 무엇이 있는지와 잘못 알던 우리말에 대해 알게 되었다. 김동환: 헛갈리는 우리말과 생소한 우리말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될 수 있는 경험이었다. 권구민: 평소에 자주 헛갈리던 우리말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.</p>
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할 점:</p> <p>권현수: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더 다양한 활동을 못한것이 아쉬웠다. 김수빈: 조사할 때는 주로 맞춤법에 초점을 맞췄는데 언젠간 비슷한 주제를 다룰 때가 있다면 우리말 표현 같이 다른 주제도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다. 김병국: 우리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학습을 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았다. 김동환: 대면으로 활동했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던게 살짝 아쉬웠다. 권구민: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더 다양한 우리말들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.</p>
<p><주요 사진 자료> 별도첨부</p>	

제 1 장

헛

갈

리

는

우

리

말

제 2 장

생

소

한

우

리

말

제 2 장

생

소

한

우

리

말

5. 역할 / 역할

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말은 바 직책이나 임무를 이르는 말은 '역할'입니다.
'역할'은 잘못 사용한 표현입니다.

1. 또바기

언제나
한결같이
꼭 그렇게
라는
의미를 가진
순 우리말

2. 뽕

유난히
귀엽게 여겨
사랑함
이라는
의미를 가진
순 우리말

3. 미쁘다

믿음성 있다
믿음만 하다

4. 다사하다

조금
따뜻하다

제 2 장				제 3 장			
생 소 한 우 리 말				마 무 리 하 며 ...			
5. 훗훗하다		6. 자몽하다		<p>575번째 한글날을 맞이하며 여러 우리말을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한 우리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? 이번 한글날을 기념하며 서로 기억에 남는 우리말을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</p>			
약간 갑갑할 정도로 훈훈하게 덜다		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이다					